

2013학년도 수시모집 일반전형

논술고사 문제지 (인문계열I)

모집단위	학부/학과	수험번호	성명
------	-------	------	----

◆ 유의사항 ◆

1. 시험 시간은 100분임
2. 답안은 답안지의 해당 문항 번호에 검은색 펜이나 연필로 작성할 것
3. 학교명, 성명 등 자신의 신상에 관련된 사항을 답안에는 드러내지 말 것
4. 연습은 문제지 여백을 이용할 것
5. 답안지 분량은 문항별 답안 길이에 맞추어져 있음

감독확인



이화여자대학교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어떤 집단에 소속된다고 해서 반드시 민족 정체성이 손상된다고 볼 수는 없다. 우리가 개인과 집단 차원에서 동료집단이나 종교에 대해 갖는 소속감이 민족 감정과 항상 충돌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종족이나 종교와 관련한 정체성이 배타적인 성향을 띠는 경우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급진적 다문화주의를 대안으로 내세워서는 안 된다. 민족 감정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정체성도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며, 다양한 문화적 요인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창조물이다. 종족이나 민족 어떤 경우에도 순수한 혈통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런데도 급진적 다문화주의는 특정한 민족 공동체가 지배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전제를 기반으로 한다. 물론 정치적 차원에서 억압 받는 집단을 보호하려는 다문화주의의 노력은 칭찬할 만하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다양한 민족 공동체 전체가 그 노력을 지지하거나,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사회정의의 관념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만 한다.

‘세계주의적 민족(cosmopolitan nation)’은 적극적인 민족 개념으로서 전통적인 민족 개념과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과거의 민족 개념은 대체로 타 민족에 대한 적대감을 기반으로 형성되었다. 오늘날 세계주의적 민족 개념은 협조적인 환경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과거와 달리 다양한 민족 감정의 공존을 받아들여 모든 민족 감정을 포괄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이런 맥락에서 민족 정체성은 보다 개방적이고 성찰적인 방식으로 구성되는데, 민족과 그들의 열망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명확하지 않은 경계선을 넘나들며 꾸준히 변화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오늘날 민족 간의 경계선이 더욱 불분명해지는 와중에 민족자결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 기존의 민족 정체성을 재구성해야만 할 것이다.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여전히 어렵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득력 있는 해답을 찾아야만 한다.

세계화 시대에 이상적인 다문화사회가 가능해지려면 세계주의 시각이 필수적이다. ‘세계주의적 민족주의’는 새로운 질서 속에서 민족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독일의 사례는 이런 점에서 세계주의적 민족주의와 관련된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오랫동안 혈통주의에 따라 시민권을 부여해 온 독일은 유럽연합이라는 새로운 변화 속에서 자국 시민들의 민족 감정을 유지하면서 문화적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주의적 민족주의가 비록 이상적인 개념이기는 하지만 오늘날 세계 질서를 고려할 때 그렇게 비현실적인 것은 아니다. 냉전이 끝나고 세계화의 충격이 지구촌을 휩쓸면서 전통적인 국가주권의 속성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이제는 국가 간의 연대감뿐 아니라 글로벌 차원의 시민사회가 등장함으로써 과거의 민족 개념을 넘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나] The number of foreign residents in Korea has currently exceeded the one million mark, over two percent of the total population. Despite the sharp increase of the immigrant population, no one has a clear idea about how to manage all the differences between Korean and foreign cultures. Decades ago, the U.S. seemed to provide an answer. It was that of the “melting pot,” a society like a pot of stew. Within the stew, the meat and vegetables give each other a bit of their own flavors to create a new one. Likewise, in such a social climate, different people made their own contributions to American culture, and made every effort to come together.

More recently, however, the situation has changed. No longer are all U.S. citizens called Americans, but they are Italian-Americans, African-Americans, Hispanic-Americans, and so on. Recent immigrants in the U.S. have begun to stick with groups that share similar cultural origins. They resist assimilation, worrying that it will make them lose their identities. Then, what is the alternative to assimilation? Some say that the “salad bowl” of so-called multiculturalism is a good model for immigrant countries. In a bowl of freshly tossed salad, all the elements are mixed together, almost preserving their shapes or flavors. Together, however, they make up a unity in diversity. The typical example of the salad bowl is that of Canada. The Canadian culture for immigrants encourages them to maintain their unique identities, even though all the different ethnic groups are mixed in one society. Learning to respect others’ cultures and traditions eventually will help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better understand one another.

[다] 관용(寬容)이란 자신과 다른 사고방식과 행위 양식을 존중하고 승인하는 태도를 말한다. 자신이 아무리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도 다른 사람의 신념 또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관용의 전제 조건이다. 나아가 관용은 모든 것을 관대하게 대하는 중립적 관찰자의 태도가 아니라 다른 존재 안에서도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태도이다. 이러한 관용은 어떤 인간도 결코 오류와 편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통찰과 모든 사람은 자기 관점에 얽매일 수 있다는 인식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하지만 관용의 범위에 한계를 정하지 않는다면 관용의 정신 자체가 존립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이러한 문제를 가리켜 ‘관용의 역설’이라고 부른다. 아무 제약 없는 관용은 반드시 관용의 소멸을 불러온다. 우리가 관용을 위협하는 자들에게까지 무제한의 관용을 베푼다면, 그리고 불관용의 습격으로부터 관용적인 사회를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관용적인 사회와 관용 정신 그 자체가 파괴당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관용의 이름으로 불관용을 관용하지 않을 권리를 천명해야 한다.

물론 합리적 논증과 공중(公衆)의 의견을 통해 불관용을 감독할 수 있다면 굳이 억압적인 수단을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관용을 위협하는 자들은 합리적 논증을 제시하는 대신 다른 모든 논증을 비난하며, 다른 사람의 합리적 논증에 귀 기울이기보다 주먹과 권총을 사용하여 그에 대응하도록 가르친다. 그러므로 관용적이지 않은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을 권리 또한 보장되어야만 한다. 살인, 유괴 또는 노예무역을 범죄로 간주하듯이 우리는 편협함과 박해를 선동하는 불관용 또한 범죄로 간주해야 한다.

**[라]** 자유주의 사회를 넘어 만민법(Law of Peoples)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유주의 사회의 시민들이 그렇지 못한 사회의 시민들을 어느 정도까지 관용할 것인가의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여기서 ‘관용’이라는 말은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해 군사·경제·외교적 수단을 포함한 정치적 제재 조치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뿐 아니라, 자유주의 적이지 않은 사회도 ‘만민사회’의 훌륭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민사회의 구성원은 특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데, 여기에는 시민성의 의무, 즉 다른 구성원들이 자신의 행동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합당한 근거를 제공해야 할 의무도 포함된다.

자유주의 사회는 우호 관계에 있는 모든 시민과 협력하고 그들을 원조해야 한다. 만약 모든 사회가 자유주의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강하게 내세운다면 정치적 자유주의를 통해 적절한 관용을 베푸는 일이 불가능할 것이다. 설혹 그러한 일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용인할 만한 방식으로 관용을 베푸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다. 자유주의 사회는 종교, 철학, 도덕 등 시민들이 지니고 있는 ‘포괄적 교리(comprehensive doctrines)’를 존중한다. 이러한 포괄적 교리가 합당한 ‘정의’와 ‘공적 이성(public reason)’의 관념에 부합되기만 한다면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논리를 자유주의적이지 않은 사회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들 사회의 기본 제도가 정치적 권리와 정의의 특정한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그리고 시민들로 하여금 만민사회의 합당하고 정당한 법을 존중하도록 한다면 자유주의 사회의 시민들은 그러한 사회를 관용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비(非)자유주의 사회를 ‘적정 수준의 사회(decent society)’로 부르기로 하자.

만약 자유주의 사회의 시민들이 모든 사회로 하여금 자유주의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강요하고, 그렇지 못한 사회에 대하여 정치적 제재를 부과한다면 적정 수준의 사회는 적절한 정도의 존중을 받지 못하게 된다. 모든 사회는 점진적으로 변화하며, 이는 적정 수준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자유주의 사회의 시민들은 적정 수준의 사회가 스스로 개혁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런 사회들을 만민사회의 선량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이들의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그리하여 모든 적정 수준의 사회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스스로 자존감을 가지는 동시에 다른 사회의 시민들도 존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록 적정 수준의 사회가 자유주의 사회와 동일하지도 않고 자유주의 원칙을 충분히 구현하지 못할지라도 이런 사회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타당한 이유는 서로 다른 사회의 시민들이 서로를 존중하도록 하는 일이야말로 만민사회의 핵심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마]** 다른 문화로 접근하면서부터 번역의 과정이 시작된다. 그런데 다른 문화의 언어를 번역할 때는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가, 오역은 없는가의 차원을 넘어서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어떤 용어나 개념은 다른 문화에 존재하지 않을 수 있고, 비슷해 보이는 용어나 표현일지라도 원어와 번역어 사이의 의미 차이가 매우 큰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공백이야말로 다른 문화를 번역하면서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이다. 예컨대 동양을 소개했던 서양인의 저술에는 친숙한 것과 이국적인 것이 공존한다. 동양은 ‘서양의 어떤 모습과 닮았다’는 점에서는 친숙하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19세기 말까지는 익숙한 면보다는 멀고 낯설며 이국적인 면이 우세했던 것 같다.

문학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버턴(R. F. Burton)의 번역서 『천일야화(The Arabian Nights)』가 지닌 매력은 이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로맨스와 이국적 정서의 배일에 싸여 있다는 것이다. 그는 마치 ‘아라비아 사람이 영어로 썼을 것 같이’ 동양적 운치와 중세 아라비아인의 순수함을 담아내려고 노력했다. 그 결과 이 작품은 서양인에게는 독창적으로 보이며 아주 멋지게 여겨지는 수천 가지 단어와 표현을 담게 되었으며, 아라비아에서는 상투적으로 사용되었을지 모르는 그런 표현조차도 아름다울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하지만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에 대해서는 사정이 달랐다. 당시 인도에 대한 묘사를 보면 동질적이고 익숙한 것이 이질적이고 이국적인 것을 일찌감치 대체한 듯 보인다. 17세기와 18세기 동안 영국인들은 점점 더 동양적 느낌에서 벗어난, 서양인의 경험과 관련된 용어를 사용해서 인도를 설명하려고 했다. 그래서 서양인의 용어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은 거의 남아 있지 않게 되었으며, 인도의 이국적 성격에서 나오는 도발적인 면은 매우 한정된 범위 안에서 유지되었다.

[바] ‘나’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므로 세계와 관계해야 한다. 그 세계는 ‘너’의 세계와 ‘그것’의 세계로 나뉜다. ‘나’와의 진정한 만남을 계속하며 ‘나’를 형성시켜 주는 ‘너’의 세계는 그 어떤 그물로도 사로잡을 수가 없다. 반면에 ‘나’를 사물처럼 소유의 대상으로 여기는 ‘그것’의 세계는 공간과 시간의 그물에 사로잡혀 있다. 곧 ‘너’는 ‘나’와의 인격적 만남이 가능한 존재라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인격적 만남이 불가능한 사물로서의 대상이라 할 수 있다. ‘너’는 ‘나’와의 관계에서 ‘그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그것’이었다가 하나의 ‘너’로 다가올 수도 있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객관적 요소는 ‘그것’의 세계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 특징이다. 이 특징 때문에 우리는 ‘그것’의 세계를 중시하여 ‘우리가 살아보지 않으면 안 될 세계’, ‘삶을 즐기고 누릴 수 있는 세계’ 또는 ‘우리에게 온갖 자극과 흥분, 활동과 지식을 주는 세계’라고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그것’의 세계에 갑자기 ‘너’가 출현하는 순간이 온다. 그것은 마치 지금까지 들어 본 적도 없는 서정적이고 극적인 에피소드와 같이 시간의 흐름 속에 돌연히 나타난다. 이러한 순간은 사람을 황홀하게 만드는 기이한 매력을 풍긴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을 벗어나 때로는 극단으로 나아가기도 하지만 일상이라는 담장이 무너지면서 만족하기보다는 후회할 수도 있다. ‘너’와의 벽찬 만남을 맛보았다 하더라도 마침내 결별하여 일상으로 되돌아가야만 한다면 차라리 ‘너’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지 않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

한편 ‘그것’의 세계와 결탁하여 ‘너’를 오로지 이용과 소유의 대상으로 삼기에 급급한 사람들은 ‘너’를 여지없이 짓밟을 수 있다. 그 사람들은 마주한 세계를 전체로 바라보지 않고 모든 것을 조각내어 관찰하려 한다.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대신 자신의 편리대로 바꾸어 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런데 존재의 본질이란 알고자 하는 자와 알려지는 자가 서로 인격적으로 마주 볼 때 비로소 드러난다. 물론 알려는 자가 ‘너’를 하나의 물질적 대상으로 파악하여 ‘그것’의 세계 속에 던져 넣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를 마주 보았을 때의 ‘너’는 단순한 물건이나 형상이 아니라 자신의 고유성을 지닌 존재였으리라.

**1** 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을 각각 요약하고, 다문화주의에 대한 두 글의 관점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30점]

**2** 제시문 [다]와 [라]에 나타난 ‘관용’ 개념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시오. [30점]

**3** 다음 인용문의 ‘코끼리’에 대한 생각과 관련하여 제시문 [마]와 [바]의 타자를 대하는 태도를 비교하시오. [40점]

낮설고 신기하며 기이하고 괴상한 사물을 구경하려거든 먼저 코끼리를 보는 것이 좋으리라. 내[연암 박지원]가 이곳 열하(熱河)에서 코끼리를 보니 두 어금니[상아]는 한 발 남짓이나 되고 코는 더욱 길다. 그래서 코끼리 코를 주둥이라 하고 다리가 다섯이라고 하는 자들까지 생겼다. 사람들이 흔히 털끝같이 작은 것도 하늘의 이치가 아닌 것이 없다고들 하지만 하늘의 이치를 어찌 쉽게 알 수 있겠는가? 어떤 이가 “짐승에게 이빨을 주어 먹이를 씹어 먹게 한 것은 하늘의 이치지요. 새와 짐승은 손이 없으므로 주둥이로 먹이를 먹습니다. 학은 다리가 길어서 목과 부리를 길게 해 준 것입니다. 닭의 다리를 학처럼 길게 하였더라면 닭은 뜰에서 굶어 죽었을 겁니다.” 라고 하였다. 그래서 내가 “그대가 말하는 하늘의 이치란 소, 말, 닭, 개에게나 해당하는 이치지요. 만약 하늘이 이빨을 준 까닭이 반드시 먹이를 씹어 먹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저 코끼리의 어금니는 오히려 먹이를 씹어 먹을 때 방해가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반문하니 미처 대꾸하지 못했다. 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코끼리도 저러한데, 더구나 천하에는 이보다 알기 어려운 사물이 얼마나 많은가!